

【한국어】

세이오보 가라쿠리 인형

이 가라쿠리 인형은 이누야마 축제 때 매년 이누야마 거리를 행진하는 3 개의 층으로 된 수레를 장식하기 위해 1776 년에 제작된 것이다. 가라쿠리 인형은 거의 모든 부분이 목제로, 톱니바퀴, 용수철, 봉, 도르래 등 복잡한 구조로 동작하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한다.

축제에서 사용되는 가라쿠리 인형은 각각 전통적인 신화와 전설을 테마로 하고 있는데, 이것은 고대 중국 신화에 기원을 둔 여신인 세이오보(서왕모)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. 세이오보는 신화에 등장하는 곤륜산 궁전에서 살며, 먹으면 불로불사가 되는 마법의 복숭아밭을 지키고 있었다.

어느 날 세이오보는 복숭아가 익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, 어린 아이인 ‘가라코’에게 복숭아를 가져오도록 명했다. 세이오보가 부채로 신호를 보내면 가라코가 복숭아를 따기 위해 나뭇가지에서 다른 나뭇가지로 건너가기 시작한다. 가라쿠리 인형을 통한 이 이야기의 재현은 17 세기 이래

거의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. 세이오보 가라쿠리 인형의 첫 번째 버전은 1649 년에 완성되었다.

세이오보 가라쿠리 인형은 수 세기 동안 몇 번이나 큰 수리를 거쳤으며, 최근에는 2002 년에 전면 수복되었다. 현재 아이치현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.

나카혼마치: 세이오보

나카혼마치의 야마(축제용 수레)는 중국 세이오보(서왕모)의 전설을 연기한 가라쿠리 인형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. 인형극에서 세이오보를 받드는 ‘가라코’가 나뭇가지를 건너다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‘아야와타리’라고 부른다.

시모혼마치: 오고시